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오늘은 기독교교육주일입니다.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오후 2시부터 '공동체성서연구' 특강이 있습니다.
- 기독교교육주간 새벽기도회를 매일 오전 6시에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 오늘 공동체성서연구 특강이 끝나고 임원 연수모임이 있습니다.
- 평양노회 정기회의가 18일(화) 오전 9시부터 성문교회에서 모입니다.
- 총회주일 헌금은 총회에 전달하였습니다.
- 장신대 기교과 1학년 수련회가 17일(월) - 18일(화) 우리 공동체에서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정동은 권사 가정 (감사)
 주인순 · 이종옥 집사 가정 (감사)
 조영길 · 박무상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42 호

2022년 10월 16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십니다

얼마 전 교육관의 왼쪽 스피커의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수요기도회 때 문제점을 알게 되었으나 손을 보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같은 증상을 보여서 예배 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원인을 알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고 간단한 청소도 알았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스피커 자체에 있다고 판단하여 낙원상가에 가서 스피커 수리를 해왔습니다.

기계들이 오래되니 하나둘씩 고장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이 제일 고장이 늦게 간다는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

저희 집에 제 방을 보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여러 공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장난 기계들을 고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조금만 손을 보면 고칠 수 있는 것들인데 원인을 못 찾거나 부품을 구하지 못해서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기기들을 오랜 시간 붙잡고 있노라면 보는 사람이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더 성능이 좋아졌고 작아지고 보기에 좋아서 새 것을 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음향장비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자료와 영상을 찾아보면서 느낀 것은 하드웨어, 즉 기계적인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도와주는 전자칩을 교체해 주거나 사용을 쉽게 해주는 정도의 변화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와 원리를 알게 되면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을 대하는 입장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 대합니다. 익숙함과 세월의 시간, 그리고 그것에 담겨 있는 의미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쳐서 사용하는 입장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오래 사용 했기에 새로운 기능이 있으며 디자인이나 실용적인 면을 고려하여 새 것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비단 물건뿐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도 비슷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본성, 즉 타고난 것이 바뀌지 않으니 바꾸려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거나 포기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사랑과 관심으

로 알려주고 관심을 가지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철학자들은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 등으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사람은 관계속에서 자라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다양한 관계들 안에서 배우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갑니다. 사회의 일원으로 살기 위해 말을 비롯한 생활양식, 예절 등을 배워갑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본적인 것들을 학교 수업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관계 안에서 교육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성서일기로 보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방 나라로 하여금 힘들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하여 줍니다. 그리고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고쳐쓰지 못하는 물건인 듯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구원하여 주시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이내 다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같은 잘못을 해도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학생 때의 교육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성인이 된 이후는 교육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삶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되도록 힘들지 않고 편하고 싶어 합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도 되돌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신앙의 여러 교육들을 통해 방향을 바로 잡아갑시다.

한주간의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사사기 18장

제목 : 단 지파의 새로운 땅으로의 이주

인도 : 정태일 목사

찬송 : 370 391 384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1-10절 단 지파가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다

11-26절 제사장을 납치하다

27-31절 단 지파가 라이스를 정복하고 이주하였다

2. 내용의 의미(Why)

- 1] 입다와 길르앗 지도자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상합니다.
- 2] 입다는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했지만 암몬의 왕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 3] 입다는 인신제사를 서원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3. 의미의 적용(How)

- 1] 진정한 경건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 2] 인간의 생각은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 3]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합시다.

성서일기

학교에서, 교회에서 즐거운 대면 생활

어느덧 가을이 왔네요! 교회에 오면 “요즘 뭐하니?”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요즘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4년 중 2년을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집에서 쉬다시피 학교생활을 했었기 때문인지, 대면 생활이 회복된 요즘에서야 신나게 학교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마침 가을이라 날씨도 좋고 시험도 끝났겠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평소보다 배로 즐겁더라고요. 언제나 그렇지만 마지막이 되니 모든 게 아쉽고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면 생활이 회복되면서 교회에도 전보다 더 많이 오게 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과 그리고 교회 분들과 더 많이 뵙게 되는데요, 학교도 좋지만 사실 저는 교회에 왔을 때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선교 바자회도 잠시 참여했었는데, 예전만큼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과 많은 사람들, 재밌는 이벤트들과 귀여운 어린이 꾸러기들까지 있으니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멋쟁이로 참여해서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없었는데, 이번에는 비록 짧지만 바자회를 정말 마음껏 누리고 돌아와 여운이 아주 길게 남았었습니다:-) 역시 교회에 오면 예전에 사랑받으며 생활했던,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들이 떠올라 더 편안해하고 자꾸만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릴 적 사랑방공동체 학교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께, 선생님들께, 교회 분들께 사랑받으며 자란 기억들을 떠올리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가 지금 더 밝고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 아직 완전히 괜찮아진 것도, 아픈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졸업 전에 학교에서, 교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정말 감사한 요즘입니다. 쓰고 보니 요즘은 정말 감사한 것투성이이네요! 이 외에도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변화가는 계절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건강하게 살아 숨 쉴 수 있다는 것, 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을 잃지 않고 가을을 무사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풍성하고 즐거운 가을 보내세요~

지체들의 삶

교육공동체 석지인 청년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신명기 6 : 5-7 인도자
10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고린도후서 5 : 17 인도자
531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요한복음 3 : 1-21 설교자
93 사랑방
“ 교육, 다시 태어나게 하라 ” 정태일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288 다함께
인도자
516(1)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채영대 장지영 / 봉헌위원 : 한미선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저희를 가르치고 훈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으로 다시 태어나는 교육을 잘 감당하여
교육선교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공동기도문

교육, 다시 태어나게 하라

니고데모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본문의 내용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는 것입니다.<1-2> 그리고 특별히 니고데모에 대하여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한 말은 간단하지만 예수님은 대화를 이어가셨고, 대화하시는 중에 깨우침과 교훈을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께 밤에 급박하게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내용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2>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3>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5>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 말씀하셨습니다.<12-16>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은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교육, 다시 태어나게 하라. 기독교 신앙은 실존적 신앙입니다. 어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에서 나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다시 태어나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혹은 성경을 알게 하는 것에서 나아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합니다. 성령은 곧 성경이므로<엡6:17> 성경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박동인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낮에는 더워서 반팔을 입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 긴팔과 겹옷을 입고 등교를 합니다. 기온차가 심한 무림리에서 아이들이 혹시나 감기라도 걸릴까 주의하면서 한 주간을 보냅니다.

10월 성경이야기는 천지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멋진 세상을 만들면서 보시기 좋다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것이 기억나는지 물어보니 처음에는 하늘에 별, 바다, 물고기 등 각자 생각을 말하다가 결국 다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과 창조물들을 평소에 당연하듯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이기에 세상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무려 전교생 4명 중 3명이 다음 주에 생일입니다. 그래서 생일인 친구를 위해 미리 생일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친구를 생각하며 카드의 모양, 색, 장식을 정하니 같은 사람이 만들어도 카드는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모두 즐거워하며 독창적인 멋진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완연한 가을입니다. 코스모스도 흐드러지고, 나무들도 예쁜 옷으로 갈아 입고 있습니다. 하늘이 너무 예뻐서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립니다. 아이들의 이야기꽃도 여기저기에 가득합니다.

화요일엔 도보여행 예행연습으로 동네길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가는 1학년들을 앞뒤 언니 오빠들이 잘 도와주며 잘 다녀왔습니다. 옷은 적당하게 잘 입고 왔는지, 신발은 적당한지, 앞여밈이 있는 가방은 잘 가지고 왔는지, 걸을 때 앞을 잘 보고 걷는지, 보폭은 어떤지 등... 을 체크했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도보여행 준비로 매일 집에서 시간을 정해서 걷기 약속도 하였습니다.

금요일 주제탐험 시간엔 체육부 주간 축구잔치를 열었습니다. 두 편으로 나누어 골대와 공 선점을 위해 게임도하고, 전 후반 열심히 축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공놀이 수준인줄 알았는데 발재간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주제 탐험시간을 기대해 봅니다.

감기로 아픈 친구들을 위해, 도보여행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자연풍경이 못 따라가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쌀쌀해진 날씨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증세를 나타내는 학생들이 더러 생겼고, 멋쟁이들은 한 주간의 표어를 "몸 관리를 잘하자"로 정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공동심화학습을 <한국의 과학기술을 파헤치다>라는 주제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접하는 과학 관련 주제여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목요일에는 <리어왕, 남사당을 만나다>라는 풍물공연을 관람하러 공주에 다녀왔습니다. 풍물 선생님이신 신하균 선생님께서 웃는 얼굴로 출연하셔서, 더 반갑고 친근한 공연이었습니다. 더불어 저번<유네스코는 처음이지?> 공동심화학습을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유네스코 유산>을 탐방하는 테마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부푼 기대를 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좋은 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럽을 여행 중인 5학년은 맑은 날씨와 더불어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귀국하는 그 날까지 안전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학년인 6학년 중에서 실기시험을 보는 등, 본격적인 진로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시기가 왔습니다.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멋쟁이들 파이팅!

< 교사 : 이어진 >

나들이 한 번 같이 하실래요?

코로나 여파로 방문임이 중단되면서 편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몸이 편한 것도 잠깐! 이리다간 더 큰 무언가를 잃어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했다. 이런저런 생각 중에 네이버에 있는 '그루터기 공동체' 카페를 방문하게 되었다. 몇 년 동안 방문하는 사람이 없어 폐쇄된 상태였지만 카페 지기에게 바로 연락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고,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서 올려진 글들과 사진으로 남겨진 그루터기 식구들의 예전 모습을 보면서 꽤 많은 시간 향수에 젖곤 했다.

카페의 사진을 보면 지금은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 이제는 다 커서 직장생활을 하고, 군대에 가거나, 어엿한 대학생이 된 꼬맹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이 그 중 첫 번째이고, 지금이나 예전이나 배는 많이 나왔지만, 흰머리 한 가닥 없는 우월한 유전자를 보유한 그루터기 식구들의 젊었을 때의 상큼한 모습이 두 번째이다. 세심하게 사진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더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진에 박힌 그들의 모습은 언제나 꾸밈없이 나오는 환한 미소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참으로 보기 힘든 모습이다.

땅에 있는 하늘나라를 몸소 실천하려고 공동체로 살아왔지만, 현실은 각자의 삶에 너무 바쁜 나머지 우리들의 얼굴에 웃음기조차 없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루터기공동체는 지금 회원의 변화가 조금 있지만 다른 방에 비해 상황이나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왜 이렇게 경직되어 있을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에 조금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무모해 보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방장님에게 옮겨올에는 무슨 일 일이 있어도 우리 그루터기사랑방은 아침고요수목원에서 하는 별빛 축제에 꼭 가자고 제안을 했다. 이왕이면 생활공동체 식구들 전부다.

나들이 한 번으로 우리의 모습이나 관계가 변화되지는 않을지라도 소소한 힐링으로 경직된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바람이다.

“어떤 가요 뜬금없지만, 같이 한 번 나들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루터기사랑방 정낙귀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씀 : 히브리서 11장 1절~6절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중보기도 :

1. 세계평화를 선교를 위한 기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

1)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과 전쟁이 멈추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2) 세계의 지도자들이 자국이 이익만이 아닌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개척자들>

1) 개척자들이 하는 여러가지 사역들을 돕는 이들의 더욱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2) 양평에 있는 샘터 공동체가 평화의 길을 찾는 이들의 공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1) 기독교교육주일 오후의 특강과 한 주간동안 있을 새벽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2) 유럽공동체 탐방 중에 있는 멧쟁이학교 5학년들의 안전과 건강, 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주 초에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간 난방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주는 난방을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밭에 고구마를 수확하는 기쁨도 누리고 마지막 옥수수와 호박도 모두 거두어 들였습니다. 이제는 배추와 무가 쑥쑥 자라갈 시기입니다. 슬슬 김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 정말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감기와 독감이 돌고 있는데 공동체 식구들도 감기에 많이 걸렸습니다. 환절기에 더 큰 어려움 없이 다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